

전주發 드론축구, 포항불빛축제 밝힌다

대한드론축구협회 포항지부,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 서 시연 드론축구 전시·홍보부스 운영·시민 체험행사로 저변확대 도모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된 첨단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가 '2018 포항 국제 불빛축제'를 밝힌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드론축구협회 포항지부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2018 포항국제 불빛축제' 행사장에 에어 바운스형 드론축구 경기장을 구축하고 전시·홍보 및 조종체험 등의 시연·체험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한드론축구협회 산하 드론축구단은 대회기간 동안 시범경기와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대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며 향후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드론축구는 지난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융합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탄소와 드론, ICT기술을 융복합해 전주시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 신개념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대한드론축구협회 산하 전국 16개 지부 및 100여 개 팀이 창단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과 말레이시아, 칠레 등 해외 각지에서 드론축구팀 창단과 대회 개최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드론축구 세계화와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개최를 향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가 제안한 드론 야간비행 허용에 관한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수용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고 최근에는 최첨단 드론과 전통문화,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ICT융복합 드론예술

공연인 '꽃심,나르샤'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선을 보이는 등 전주시가 드론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써 주목받고 있어 향후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에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의 활용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레저스포츠 분야와 드론의 융복합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 레저스포츠산업인 드론축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향후 드론축구 세계화를 통한 레저스포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전주를 세계적인 드론 메카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몽골서 봉사활동

'나눔천사' 해외봉사팀, 다양한 재능봉사·교육활동 전파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몽골 비오름비나트 지역으로 7일간의 봉사활동 여정을 떠난 8명의 '나눔천사'들이 현지에서 다양한 재능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지 파견팀에 의하면, 몽골 비오름비나트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와 10번 학교에 찾아가 몽골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선아트 및 이발·미용 봉사를 펼치고 있다고 전하고 이후 현지 동사무소와 함울구청, 함울구 자원봉사센터 등을 방문하여 앞으로의 자원봉사 협력방안 모색과 2019년에 몽골에서 진행될 전주시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식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

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 '나눔천사'로 파견된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팀은 36기 월드컵프렌즈 청년봉사단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과학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25일에는 한국, 몽골간의 문화교류 축제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울구자원봉사센터와의 자매결연 협약 등을 진행했다.

'나눔천사' 해외봉사 단원들은 국제 올림피아드 대학 방문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모든 봉사활동 일정을 마치고 오는 27일 36기 월드컵프렌즈 청년봉사단 28명의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땀으로 젖은 옷 전주시의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25일 전주시내의 한 공사현장에서 땀에 젖은 인부가 그늘막 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주형 스마트시티 실증모델 'SMART JICA'

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시연회

편의서비스·도시통합관제플랫폼 등 주요 실증모델 시연

'문제해결형·사람중심형' 스마트시티 구축 지속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이 무선 네트워크 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선 가운데, 미래 도시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시연회가 열렸다.

시는 지난 24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진흥원 관계자, (주)고백기술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실증모델인 'SMART JICA' 시연회를 열고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SMART JICA'는 시가 지난해 약 5개월에 걸쳐 진흥원 내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실증 테스트베드로서 가로 등에 장착된 CCTV 등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관제, 출입관제 등 편의서비스와 ICT 기반 도시통합관제플랫폼

등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시연회에서는사업추진 경과보고, 스마트 서비스 현장시연, 통합관제플랫폼 소개 및 시연, 전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 현황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총 10개의 스마트 가로등의 CCTV와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실시간 출입관제 및 차량관제 시연, (주)고백기술 사무실에 구축된 ICT융복합 통합관제플랫폼을 통해서 GIS와 3D모델링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표출과 실시간 영상관제 등이다.

시는 그간 추진해온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전략 수립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운영 △스마트시티 실증 테스트베드 'SMART

JICA' 구축 등 지속성장 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주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통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형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이다"며 "전주만이 제시할 수 있는 사람중심형,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특화 모델을 발굴해 세계적 스마트시티 표준으로 육성해 감으로써 전주시를 사람의 숨결과 첨단 기술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별별마당-마당상설' 첫 공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군산 수송공원에서

퓨전국악·클래식·대중음악 등 콘서트 진행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라북도 군산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2108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별별마당-마당상설'의 첫 공연을 한다.

군산 수송공원에서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군산 시민오케스트라의 '아외에서 듣는 클래식'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폭염으로 두시간 늦춰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군산 수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비보이팀 '라스트포원'과 타악연희원 '아귀', 그리고 퓨전국악 '문화포럼 나니레'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 공연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7일 첫 공연을 시작한 '뮤지컬 흥도'가 8월 4일, 15시와 19시 30분 2회에 걸쳐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서막을 올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2018 뮤지컬 흥도는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흥도'를 원작으로 하여 조선 시대 중기 혁명가인 '정여립'의 사상과 삶, 그에 얽힌 대동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불사의 품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400년 동안 기다리는 신비로운 여인 '흥도'의 삶과 사랑을 뮤지컬로 극화한 작품으로 '전북예술회관'에서 12월 8일까지 상설로 공연되고 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흥송광추진단장은 "지난 첫 번째 희망버스 해커톤 공연에서 보여준 군산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뮤지컬 흥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며 "군산 시민의 많은 호응을 바란다"고 전했다.

'별별마당-마당상설'의 공연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예매처인 금강방송(www.kn.tv) 또는 현장발권도 가능하며 뮤지컬 흥도가 8월 4일, 15시와 19시 30분 2회에 걸쳐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서막을 올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송효철 기자

유망 건강식품기업 육성·지원 성과 '톡톡'

전주농생명연구원, 기술지원사업 3차년도 성과발표회

다양한 지원 받아온 도내 30여개 유망기업 제품 전시

콜라겐젤리, 산양유크림, 한우장조림 등 전주시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김양원 전주부시장)의 기술지원을 받은 건강식품기업들의 성과를 알리는 전시회가 열렸다.

연구원은 25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기술지원사업 관련 유망기업과 지자체 연구소, 수혜기업, 사업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산업 유망품목 기술지원사업'의 3차년도 성과전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사업은, 연구원이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11억 여원을 확보, 농생명기업과 식품기업 등에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베드제품 지원 △제품 고도화 지원 △기술지도 지원 △기술이전 지원 △특허 및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한 사업이다.

이날 성과전시회에서는 기술지원사업의 3차년도 성과발표와 함께, △향

후 R&D 사업추진 방향 △감의(재미 있는 화장품/식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 향후 발전방안 논의 및 오찬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 간 약 12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도내 30여 개 기업의 성과 제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는데, 세부적으로는 테스트베드제품 지원을 받은 콜라겐 젤리(아토크엔에이)와 제품고도화 지원을 받은 산양유크림(휴먼피아코스텍), 수출지향형 인증지원을 받은 유자생강차(고려자연식품), 특허 및 인증지원을 받은 한우장조림(그린팜푸드) 등 식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여졌다.

연구원은 이날 성과전시회 참여기업과 전주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 향후 진행될 바이오활성소재 기술지원사업에 더 많은 지역기업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